

02

경운궁과 도시경관



1) 경운궁과 환구단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이후, 1896년 2월 11일 고종과 왕세자가 경북 궁을 떠나 러시아공사관에서 약 1년 동안 머문 후, 고종은 1897년 2월 25일 경운궁으로 환궁하여 1897년 8월 16일 연호를 건양(建陽)에서 광무(光武)로 바꾸었다. 같은 해 10월 12일 환구단(圓丘壇)에서 고종은 황제즉위식을 거행하고, 10월 13일 대한제국을 국호로 선포한다. 이로서 1867년에 중건된 조선의 정궁 경복궁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통치공간이 30년만에 경운궁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의 변란 중에 소실된 채, 270여 년 동안 폐허로 남겨져 있었다고는 하나 경복궁과 육조거리는 조선왕조 내내 한양도읍의 상징적인 도시공간이었다. 더욱이 1867년에 국력을 다하여 웅장한 규모로 중건되고 나니, 과연 정도전의 ‘진신도팔경시(進新都八景詩)’에 묘사된 이경과 삼경의 표현과 같이 “성은 높아 천 길의 철옹성이고 구름에 둘러싸인 궁궐 오색